



지금, KIA에선 '09시즌' 우승의 향기가 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은 최근 "요즘 팀 분위기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8위, 2008년 6위에 그쳤던 KIA는 2009년 후반 극적인 상승세를 탄 끝에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당시 KIA는 출발이 불안했지만 LG에서 옮겨 온 김상현의 방망이가 연일 폭발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여기에 최강 선발진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용병 듀오 아펠리노 로페즈와 리 구토스는 27승을 합작했고, '토종 에이스'인 윤석민은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전천후로 활약했다.
5월에 3위로 올라서 상승세를 탔고 8월에는 월간 최다승(20승)을 쌓았다. 한국시리즈에서도 7차전에서 1-5로 뒤지다가 9회말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기적 같은 우승 드라마를 썼다.
올해도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비슷하다. 5월 초까지 5~6위에 머물렀지만 5월 한 달 동안 14승11패(승률 0.560)를 거두며 전력을 추슬렀고 6월 들어 5연승을 거뒀다.
야구야구 승수를 쌓은 KIA는 어느새 30승(23패) 고지에 오르면서 LG와 공동 2위가 됐고 1위 SK에는 1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나섰다. SK와 LG가 최근 주춤한 분위기가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조만간 1위 자리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민



김선빈



이범호

막강한 6명 선발진 퀄리티스타트 28차례 '승승장구'

조 감독의 말처럼 KIA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탄탄한 선발진과 타선의 '깜짝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시즌 초반 주춤했던 선발진이 요즘 8개 구단 최강의 구위를 자랑하며 든든하게 경기를 지켜주고 있다.
윤석민, 양현종, 서재용, 로페즈, 트레비스 블랙리 등 선발진은 8개 구단에서 가장 많은 28차례의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 이하 투구)를 작성했다.
KIA는 퀄리티스타트 경기에서 20승8패(승률 0.

714)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승세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 선발진은 또 KIA가 이번 시즌 5회까지 앞선 경기의 승부에서 0.960(24승1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올릴 수 있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슬라이더의 위력이 배가 되면서 더욱 강해진 에이스 윤석민과 지난해 16승(8패)의 구위를 찾아가는 양현종이 나란히 6승을 거뒀다. 용병 투수 듀오는 9승을 합작했고 베테랑 서재용은 5연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살아나고 있다.
팀 평균 자책점은 3.66으로 SK(3.07)와 삼성(3.15)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테이블 세터 이용규 김선빈·해결사 이범호 '찰떡궁합'

타선에서는 2009년 김상현 대신 이범호와 김선빈이 연일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범호는 타점 2위(46개), 홈런 3위(11개)에 오르며 새로운 '호랑이 해결사'로 자리 잡았다.
4월 한 달 동안 홈런 4개에 27타점을 몰아친 이범호는 5월에도 홈런 6개에 17타점을 작성하면서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중심타자 최희섭과 김상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여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거인' 김선빈의 맹활약이 터져 나왔다. 타율 0.310을 친 김선빈은 2

일 LG와의 경기에서 결승 3점포를 날리는 등 홈런 2개와 29타점을 작성하고 있다.
또 톱타자 이용규는 타율 0.370의 정교한 타격 솜씨와 빠른 발을 앞세워 팀 공격의 물꼬를 트고 있다.
지난 시즌 팀 타율 7위(0.260)의 KIA는 현재 타율 0.274로 LG(0.278)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조범현 감독은 "이범호가 타선에 보강되면서 선수단에 좋은 활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범호는 "이용규와 김선빈이 테이블세터로 맹활약한 덕분에 팀 타선 전체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프로야구 팀당 140경기 치른다

내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3월 31일 개막한다. 8개 구단 단장들이 이뤄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는 7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올해 4차 회의를 열고 2012년 프로야구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성적을 기준으로 한국시리즈 우승 팀 SK와 5위 KIA가 2012년 3월 31일 인천문학구장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르고 삼성-LG(대구구장), 두산-넥센(잠실구장), 롯데-한화(사직구장)가 같은 날 격돌한다.

지난 1월 1차 실행위 결정에 따라 2012년부터는 올해보다 일곱 경기씩 늘어난 팀당 140경기를 벌이고, 팀 간 경기도 20차전으로 늘어난다.
실행위는 또 내년 시범경기부터는 구장 관리비용(전기·용역·청소비) 명목으로 소정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실행위는 승부조작과 사설 토토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멀티플레이어 돼라"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축구대표팀 공격수들의 '생존 키워드'로 떠올랐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은 7일 "전방 공격수들은 자기 포지션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며 "포지션을 고수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포지션 이동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기 포지션이 아니라서 잘 못 뛰었다고 하는 선수는 대표팀에 발탁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 감독은 올해 초 카타르에서 치러진 2011 아시안컵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구자철(볼프스부르크)에게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를 맡기는 실험을 단행했다. 구자철은 생소한 포지션이었지만 5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할 수 있었다.

조 감독은 이후 터키와의 평가전에서 구자철을 박지성의 자리였던 왼쪽 날개에 이동시켰고, 지난 3일 세르비아전에서도 왼쪽 공격수로 활용하려 했지만 구자철의 컨디션 난조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조 감독은 왼쪽 날개에 이근호(감바 오사카)와 지동원(전남) 카드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왼쪽 측면 공격수인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에게 오른쪽 날개와 처진 스트라이커를 맡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시즌 평점 7점 맨체스터이브닝뉴스

"득점에서 힘 보탤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지난 시즌 득점에서도 팀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맨체스터 지역신문인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7일 맨유 선수들의 2010-2011시즌을 정리하면서 박지성에게는 "이번 시즌 8골을 넣어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득점에서도 기여했다"며 평균 점수대인 7점을 줬다.

박지성은 이번 시즌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인 선수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

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세웠다.
이 신문은 "박지성은 늘 그랬듯이 에너지가 가득했다"면서 지난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출전과 부상으로도 좋은 흐름에 지장을 받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박지성과 함께 공격수 웨인 루니·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미드필더 마이클 캐릭·폴 스콜스·대런 플레처, 수비수 하파엘 샤프에겐 7점을 매겼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접은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 사르와 중앙수비수 네마냐 비디치, 공격수 허비에르 에르난데스, 미드필더 루이스 나니는 가장 높은 9점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FC 오늘 대만 월드컵 대표팀과 친선경기

광주 FC가 대만 축구 대표팀을 상대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승부조작 논란에 휘말렸던 광주 FC가 8일 오후 3시30분 목포 축구센터에서 대만축구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달말 월드컵 1차 예선을 앞두고 있는 대만은 목포에 캠프를 꾸리고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이번 경기는 대만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분위기 반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소속 골키퍼의 승부조작 연루로 곤욕을 치른 광주는 A매치 기간 휴식을 반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펼치며 대회팀들과 연습경기를 가져왔다.
한편 광주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 일화 FC를 상대로 K리그 1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



무더운 여름 시원한 질주 7일(한국시간) 프랑스 생 피에르~샤르뜨루즈까지 알프스 산악지대 144km 구간에서 열린 제 63회 도핀 도로사이클 1구간 경기에서 선수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반 덴 브릭이 우승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TEL. 062)228-8000 / 062)221-4130